



목포대양산단이 그동안 128개 기업과 1천929억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률 88.81%를 기록하며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다. 사진은 대양산단 전경.

목포대양산단, 서남권 경제 중심지 ‘우뚝’

분양률 88.81% 수산가공·에너지 관련 기업 속속 입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도시 브랜드 급상승 효과
김종식 시장 “전략산업 투자여건 강화 올해 분양 완료”

목포 대양산단이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고 있다. 분양률이 90%에 육박하면서 수산가공·에너지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목포시는 대양산단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평가를 받는 등 도시 브랜드 급상승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대양산단은 총 128개 기업과 1천929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90개 기업이 가동 중이거나 조성 중이다. 대양산단 분양률은 당초 지난해 목표인 85%를 초과 달성한 88.8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적극적인 기업 친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김종식 목포시장의 행정전문가로서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목포의 미래를 내다보고 산단 조성을 추진한 민선 5기 정종득 전 목포시장의 정책 판단이 옳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양산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도축장 등 시민 생활 관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대양산단은 민선 5기 정종득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산단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대양동 일원(155만㎡ 규모)에 조성됐다. 당시 전남 서남권 경제상황은 조선산

업 위주의 단순 산업 구조로 업종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조선 관련 산업 외에 식료품, 신재생에너지, 전기장비, 물류유통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대양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산적인 현안들이 함께 해결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우선 산단 편입 부지로 내화촌, 장자곡 등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이 포함되면서 고질적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집단민원이 해소됐다. 산단 조성 부지에 주변 마을이 포함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가 집단 이주했기 때문이다.

기존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악취 등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나 시위를 자주 가졌고 이로 인해 시가지 전체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집단 이주 이후 관련 민원은 완전 해소되고 도축장 등 시민 생활시설이 신설되면서 추가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압해대교 교차로와 시내 도심을 연결하는 산단 진입도로를 시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개설,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압해대교를 연결하는 지점이 3지 형태 교차로로 돼 있어 시내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산단 진입도로를 명분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시는 업종별 투자환경 설명회, 투자기업 맞춤형 상담, 입주기업 원스톱 서



김종식 목포시장이 대양산단 입주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예로서향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비스 등 다양한 투자활동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단 지정 등 분양률 제고에 주력했다.

특히 대양산단은 바다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과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강점을 살려 수산식품 해양수산융복합벨트와 연계한 수산식품가공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다.

산단 내 3만㎡에 사업비 1천89억원을 투입해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된다. 이곳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지원시설, 냉동냉장창고, 마른김 거래소, 수출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역 수산물 유통,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육성한다.

또 대양산단과 목포신항이 지난해 11월 국내 1호 ‘국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입주할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용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대양산단에 2024년까지 390억원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이 구축된다.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 해상풍력 기자재부품 생산 기업 유치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포시의 노력과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정진호가 커지고 있다.

실제 목포시는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기업 대상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 전남도 2020년 경제부평 평가에서 일자리창출 부분 대상,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최우수상, 투자유치 부문 우수상 등 전 분야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산단 분양율을 대폭 높인 공적 등으로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대양산단 분양에 적극 매진해 실수요자를 위한 신규 업종 추가, 필지 분할 등 맞춤형 분양 활동을 펼쳤다”며 “미래 3대 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 여건을 더욱 강화해 올해 분양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신안, 올해 역점사업 국비 2천785억 확보

신안군은 11일 “올해 역점사업 국비 예산 2천78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 주요 사업은 ▲압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298억원 ▲신장-북룡 국도2호선 시설 개량 137억원 ▲가거도항 복구공사 206억원 ▲홍도항 개발 111억원 ▲흑산도항 개발 107억원 ▲신안경찰서 신축 21억원 ▲목포경찰서 자은파출소 신축 3천만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억원 등이다.

특히 국립소금산업진흥원센터 신축(총사업비 100억원)을 위한 설계용역비 3억원이 반영돼 군 핵심사업인 천일염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공모를 통

해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 477억원 ▲신안 무안 탄도만 갯벌 복원 28억원 ▲천일염 산업 육성 57억원 ▲배수개선 사업 25억원 ▲신안군 다목적도서관 건립 11억원 ▲도서 식수원 개발 61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7억원 등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적체적소에 투입해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을 뒷받침하고 소득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시민과 함께 하는 목포예술제 준비 최선”

임창성 목포신안예총 회장 새해설계

“문화예술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목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성(사진) 목포신안예총 회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올해 61회 짚을 맞는 목포예술제를 새롭고 혁신적인 예술제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예술인만을 위한 예술제가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올해는 더 많은 예술인 자녀 및 장학생을 선발해 목포신안 예술 발전에 일조하겠다”며 “공약사항인 목포 여류 1호 미술가 김영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미술 행사를 개최하고 선배 예술인을 기리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매년 시민과 함께 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토요예술행사도 시

민 결의로 다가가 앞차고 행복한 공연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중부와 동부의 교류인 청주·예술인과의 만남, 동서 교류인 여수·예총과의 교류도 올해는 청주와 여수를 찾아가 목포신안 예술인의 지력을 보여주고 문화도시에 걸맞는 예술활동을 각 협회와 공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차츰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신의 영역을 제외하고 인간은 모든 것을 이겨왔고 발전시켜온 만큼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예방 목포신안의 르네상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목포=정혜선기자

“고부가가치 대체 작목 육성 역량 집중”

고영인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장 부임

“지역 농협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대체 작목 육성에 역량을 집중, 농업강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고영인(64·사진)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장은 “함께 하는 100년 농협의 출발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신안군의 정책에 부합한 친환경농업 확대와 고부가가치 대체 작목 발굴·육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 지부장은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한 통합마케팅 집중 추진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임직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신안 출신인 고 지부장은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전남지역본부 차장, 광주영남본부 경영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신안=양홍기자

ISO 9001

CONVEYOR 제작 전문업체

물류자동화 선두기업

KS/ISO 획득 기술혁신

현대콘베어[주]

HYUNDAI CONVEYOR

설계에서 시공까지

품질/가격혁신 확실한AS

제 10-1101423 호

▲ A/L 상하자콘베어

▲ 파워벨트콘베어

제 10-1097613 호

▲ 카펫콘베어 (블베어링, ABS)

▲ A/L 사다리 콘베어 (블베어링, ABS)

▲ 자바라콘베어 (블베어링, ABS)

▲ A/L 프로파일 수평콘베어

90도 커브콘베어

▲ A/L 체인상하자콘베어

▲ 나무체인 상하자콘베어(통형)

신속확장이전

대표전화 : 1688-3708

61094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32번길 50

AS전화 : 062-511-0541 팩스 : 062-511-0543

E-mail : jang511@hanmail.net

CONVEYOR 제작 전문업체

현대콘베어[주]

www.hd-c.co.kr (쇼핑몰 운영중) **쇼핑몰에서 다양한 제품을 쉽고 빠르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신축확장이전

대표전화 : 1688-3708

61094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32번길 50

AS전화 : 062-511-0541 팩스 : 062-511-0543

E-mail : jang511@hanmail.net

현대콘베어(주)는 1993년에 창업하여 27년동안 콘베어 제작 전문업체로, 일반기계요소 부품에서 콘베어 부품을 전문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적 향상과 규격화를 지향하며 물류자동화의 선두기업으로 현대콘베어(주)만의 노하우와 기술로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ISO)에 준하는 완성된 품질을 생산 개발하여 앞으로도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QR

콘베어 자동화 설비 제작 전문 / 물류자동화의 선두 기업

현대콘베어[주]

HYUNDAI CONVEYOR

CMYK